

보도시점 (온라인) 2026.10.15.(목) 12:00
(지 면) 2026.10.16.(금) 조간

리스콘 한국관 운영 성황리에 마무리, 한일 안전산업 협력 강화

- 국내 재난안전기업 23개사 참여, 비즈니스 상담 561건·업무협약 3건 체결
- 일본 내각부와 양해각서 재체결, 2027년 안전산업박람회 일본관 운영 등 재난안전 협력 확대 논의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9월 30일부터 10월 2일까지 일본 도쿄에서 열린 ‘2026 리스콘 도쿄’(RISCON TOKYO 2026) 재난안전기업 한국관 운영을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리스콘 도쿄는 방재·소방·보안 등 재난안전 분야의 제품과 기술을 선보이는 일본의 대표적인 박람회로, 2005년에 시작해 올해로 22회째를 맞았다. 도쿄 빅사이트에서 열린 이번 박람회에는 380개사가 550개 부스를 운영하고, 정부·공공기관과 민간기업 관계자 등 약 2만 1천 명이 참관했다.

>> 리스콘 한국관 운영으로 국내 기업 일본시장 진출 발판 마련

행정안전부는 국내 재난안전기업의 일본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2024년부터 3년 연속 한국관을 운영하고 있다. 올해 한국관에는 행정안전부가 지원하는 8개사와 부산·전북·경남 지방정부가 지원하는 15개사가 참여해 지진 경보시스템, 화재 대응제품, 구조·구급 장비 등을 선보였다.

참여기업은 박람회 기간 동안 현지 바이어·투자자 등과 약 680억 원 규모의 561건의 비즈니스 상담을 진행하고, 제품 판매·유통, 기술 협력 등에 관한 3건의 업무협약(MOU)을 체결하는 성과를 거뒀다.

특히, 현지 시장 진출 경험이 있는 선도기업 관계자가 일본 시장 정보와 진출 전략을 공유하는 ‘일본 시장 진출 전략 설명회’와 일본 기업 등을 대

상으로 국내 우수 재난안전제품·기술을 소개하는 투자설명회(IR 행사)도 함께 개최해 참여기업의 현지 네트워크 구축과 후속 비즈니스 연계를 지원했다.

행정안전부는 상담과 협약 등 박람회 성과가 실제 수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후속 지원을 이어가고, 내년에 한국관을 운영할 해외 박람회를 관계 기관과 협의해 선정할 계획이다.

>> 일본 내각부와 안전산업 교류·협력 확대 논의

한편, 행정안전부는 일본 내각부 간의 회담을 통해 일본 방재청 출범 등을 계기로 기존 재난관리 분야 MOU 개정 필요성과 안전산업 분야 교류·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2027년 대한민국 안전산업박람회에 일본관을 구성·운영하는 것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향후 협력 가능성을 확인했다. 양측은 양국의 기술적 강점을 연계해 세계 재난안전 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협력을 확대할 필요성에도 공감했다.

박형배 안전예방정책실장은 “3년 간 리스콘 박람회에 한국관을 운영하며 우리 재난안전기업의 우수한 기술력과 일본시장 진출 가능성을 확인했다”라며, “앞으로도 양국 간 재난안전 정책과 안전산업 분야의 교류·협력을 확대하고, 우리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안전예방정책실 재난안전산업과	책임자	과 장	박경훈 (044-205-4180)
		담당자	주무관	서지우 (044-205-4184)



참고

일본 리스콘 한국관 운영 사진



